

2023년 [하계] 해외어학연수 설문지

학과: 영어교육과 이름: 오현우

2023년 해외 어학연수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이 느낀 바를 작성해 주시면 차후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데 필요한 자료입니다. 빠짐없이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어학연수에 참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영어실력 향상을 위해서 ②취업을 위해서 ③목적없이 참가 ④기타(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2. 어학연수 이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토익특별반, 토익사관학교 등 교육과정에 계속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3. 이번 해외 어학연수 과정을 친구나 선후배에게 얼마나 추천하시겠습니까?

①아주 많이 ②많이 ③보통 ④안함

☐ 전체 반응도

구분	매우높다	높다	보통	낮다	매우낮다	기타
해외연수 전반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V				
영어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V				

☐ 연수 만족도

구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	어떤점이...
연수국가	V					
교육 프로그램			V			한국인들끼리 배치해두고 학교 측에서 공지 한번 없었던 점
주말 프로그램	V					
강사진	V					
기숙사	V					
강의실	V					
식사	V					
편의시설	V					
기타()						

☐ 교육생 의견 (*반드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소감 및 건의사항	[좋았던점] - 검증된 홈스테이 배치로 많은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 대학에서 제공하는 액티비티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영어에 노출되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 수업 방식이 학술적인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발표하고 말할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이 좋았고, 무엇보다도 학습에 대한 압박 없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리기에 적합합니다. [나빴던점] - 어학연수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학생 배치, 한 반에서 두 명을 제외하고 모두 한국인끼리 배치를 하였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공지하고 설득하려고 나이가가라 대학 쪽에서 나서야 하는데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 [이것만은 꼭 개선해 주세요] - 대학과 학생 간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 개선 부탁드립니다.
-------------------	---

* 성실히 답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캐나다 어학연수 소감문>

	이름: 오현우	학과: 영어교육과 학번: 202043025
소감문	저는 여태 한국에서 성적이나 목표를 위한 도구적 동기만으로 영어 공부를 해왔습니다. 13년 넘는 기간 동안 오로지 도구적 동기만으로 영어를 공부해왔었는데, 해외 출국 경험이 없는 저로서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영어에 노출되는 것이 사실상 처음이라 약간은 부담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캐나다 생활 초반에는 홈스테이 가족들의 말에 반응하는 것조차도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었는데, 어학연수의 진가가 여기에서 가장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많은 양의 영어 샘플에 노출이 되다 보니, 이에 익숙해지고, 학술적인 영어 공부보다는 자유롭게 말하고 표현하는 데에 집중이 가능한 환경과 교육에 노출이 되다 보니, 영어 자체에 대한 강박감과 압박감이 줄어들었습니다. 금세 영어 자체에 대한 흥미와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하는데 서툴긴 하더라도 스스로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경험은 홈스테이입니다. 나이가가라에서 좋은 가족들과 홈스테이를 하게 되었고, 그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이며, 도움을 받기도 하고, 추억을 만들어 나가면서 캐나다 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향상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은 자신의 생각과, 액티비티 현장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발표하는 등의 영어로 발표할 기회를 제공해주어서 관용표현과 어휘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주 주어지는 조별과제 역시 팀원 간 아이디어를 충분히 나누고 자료조사를 하는 과정을 거치다보니, 복잡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수준급의 퀄리티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소통이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업에 더불어, 제공되는 다양한 액티비티는 캐나다 문화 경험의 토대가 되어, 학교에서 제공하는 ESL 교육이 단순히 전달되는 정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액티비티를 통해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고, 다른 학교에서 온 학생들과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한국 학생들끼리만 배치가 되었다는 점인데, 다음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캐나다 어학연수를 통해서 영어교육과 학부 생활과 학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앞으로의 학습동기 형성에도 큰 영향을 받을 것 이라는 직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책으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닌, 영어 그 자체가 목표이자 수단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으며, 한달 동안의 경험이 저를 성장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건강하게 공부하고 즐길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활동사진>

